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로맨스의 절댓값’ 김향기, ‘이묵’ 정체 들통으로 학교 발칵! 킹받는 웃음부터 청춘 성장통까지 제대로 터졌다!

2026. 5. 26.

쿠팡플레이 시리즈 <로맨스의 절댓값>이 베일에 싸여있던 작가 ‘이묵’의 정체 발각과 함께, 청춘의 성장통을 정면으로 마주한 13-14화를 공개하며 시청자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겼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로맨스의 절댓값>(감독: 이태곤, 김준형 | 출연: 김향기, 차학연, 김재현, 손정혁, 김동규 | 제공: 쿠팡플레이 | 제작: 풍년전파상, 보더리스필름 | 공동제작: Mediacorp)**은 꽃미남 선생님들을 주인공으로 로맨스 소설을 쓰던 여고생이 현실에서 그들과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마주하며, 파란만장한 학교생활의 주인공이 되는 하이틴 코미디 시리즈.**

공개된 13화에서는 '가우수'(차학연)을 향한 '의주'의 마음이 한층 선명하게 그려졌다. 고백을 결심한 '의주'는 방과 후 어렵게 '우수'를 찾아가지만, 정작 엉뚱한 말만 늘어놓으며 특유의 허당 매력을 폭발시켰다. 진심을 고백하지 못한 '의주'는 소설 <우린 친구였어>를 통해 '우수'를 향한 감정을 풀어내며 또 한 번 사심 가득 폭주하는 상상력으로 웃음을 안겼다.

그 시각, 학교에서는 소설 속 인물들이 실제 선생님들과 닮았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은하수'(노주은)는 점점 '의주'를 '이묵'으로 의심하기 시작한다. 댓글 반응과 주변의 압박 속에서 정체가 들통날까 불안에 떠는 '의주'는 결국 작품 삭제까지 고민하게 되고, '우수'에게 소설 쓰는 것을 쉬어야겠다고 털어놓는다. 이에 '우수'는 **"앞으로 나아간다며. 나아질 거라며. 그럴려고 시작한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흔들리는 '의주'를 붙잡았다.

14화에서는 질투심이 폭발한 '하수'의 폭로로 본격적인 사건의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우수'의 반응에 '하수'는 교장실까지 찾아가 징계를 요구하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몰입감을 선사했다. 그 가운데 정체가 탄로난 후에도 끝까지 '의주'의 편에 서준 '고야'는 친구들의 비난에 맞서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고, 두 사람의 우정 서사는 시청자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안겼다.

무엇보다 이번 회차의 하이라이트는 '의주'가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세상에 꺼내놓는 순간이었다. "처음으로 좋아하는 게 생겼어. 그게 소설 쓰는 거야"라고 부모님에게 털어놓는 장면은 꿈을 숨긴 채 살아가는 청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깊은 공감을 자아냈다. 이어 웹소설 사이트에 직접 정체를 밝히고 작품을 내리는 '의주'의 눈물 엔딩은 먹먹한 여운을 남겼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의주'를 다그치기보다 스스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우수'와 선생님들의 모습 역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네가 이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겪어내고 감당했느냐야"**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청춘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건넨다.

초대형 위기 속에서도 끝내 자신의 마음과 꿈을 마주하기 시작한 '의주'의 파란만장한 성장기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쿠팡플레이 시리즈 <로맨스의 절댓값>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